

INWEPF 국제심포지엄

염 명 철

(libero87@naver.com)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INWEPF-PAWEES 공동 국제심포지엄이 2010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2003년 제3차 세계물포럼 이후 논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농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해 2004년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매년 심포지엄 및 운영위원회를 국가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보전 방안 사례 수집 및 국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제7차 운영위원회가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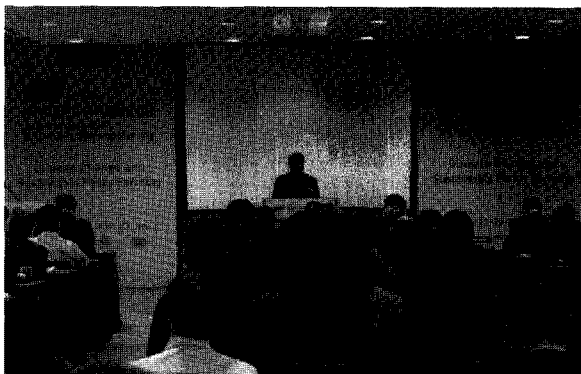
INWEPF란 논 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Water & Ecosystem in Paddy Fields)의 약자로 2004년 2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논 농업국가 16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조직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논 농업지역 국가 및 아프리카의 이집트가 INWEPF 회원국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INWEPF는 아시아 논 농업 국가의 식량안보와 가난해소, 지속가능한 물 사용에 대한 공동협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계 다양성의 이해와 경험, 노하우의 공유 및 중요성 인식,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효율적 물관리 및 영농법 연구, 적용과 전파 등에 노력하고 있다.

INWEPF는 제3차 세계물포럼(2003년 3월, 일본 교토) “농업장관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안의 후속조치로 일본에서 아시아 몬순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정책/수행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설립 제안으로 출발하였으며, 일본과 한국 주도의 “논 농사의 다원적 기능” 강조를 확대시키기 위해 아시아 논 농업국가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호주·EU등에 대응코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논농업(Climatic Change and Sustainable Paddy Farming)”이란 주제로 17개국 150여명의 국내외 농업·농촌





전문가 및 정부 정책담당자, 그리고 연구자들이 들이 한 자리에 모여,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논과 농촌의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논농업의 보호토대 마련을 위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농식품부 정황근 농촌정책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일본 대표(PAWEES 대표), 한국대표(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가 각각 축사를 하였으며, 기조연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농촌지역에서의 수자원관리”, “참여 관개관리(PIM)”라는 제목으로 각각 건국대 김선주 교수와 일본의 마사요시 사토 교수가 발표하였다.

심포지엄 세션 I(좌장 : 필리핀 D. Pascua)에서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라는 주제로 말레이시아·일본·중국·대만의 대표들이 발표하였으며, 세션 II(좌장 : Kazumi Yamaoka)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개기술”이라는 주제로 태국·파키스탄·인도·이집트·필리핀·한국의 대표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심포지엄에 이은 제7차 INWEPF 운영위원회의에서는 건국대학교 윤춘경 교수님이 운영위 위원장으로, 말레이시아 압둘 잘일 과장이 운영위 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주재하였다. 2010~2011년

활동방향 제안 및 토의에서는 WWF6 개최 시 INWEPF의 기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을 회원국으로 선정하였다.

워킹그룹회의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WG-1에서 이푸가오 다랑논 현장조사 결과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한국이 의장국인 WG-2에서는 활동보고서 작성 및 WWF6 기여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의장국이 일본인 WG-3 회의에서는 수리계와 관련된 회원국의 현황 및 활동자료, 설문서 분석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조진훈 박사의 2010년 ICID 회의 결과 소개, 일본 대표의 2010년 APEC 장관회의 결과 소개 등이 이어졌고, 기타 안건으로 APEC 장관급 회의 후속조치로 내년에 일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의 8차 INWEPF 운영위원회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2012년은 미얀마, 2013년 회의는 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후, 2박3일간의 국제 공동심포지엄 및 INWEPF 운영위원회가 마무리되었다.

